

제11절 직산2리(直山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남쪽은 거일1리(巨逸一里)와 경계를 하고, 동쪽은 동해에 저장(猪場)과 닿아 있다. 서쪽은 둔기산(屯起山) 지맥(支脈)이 우뚝 솟아있고, 마을 뒷산의 북쪽이 바다 쪽으로 뻗어있어 포구(浦口)로 된 동향의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1976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행정구역 리(里) 개편(改編)으로 직산리가 1리·2리로 분구(分區)되어 직산2리로 되었다. 1980년 12월 12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직산2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141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대종을 이루며 영천 이씨(永川李氏), 달성 서씨(達城徐氏)와 기타 성씨들이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매년 음력 정월 초에 성황당(城隍堂)에서 정초고사(正初告祀)를 지내고, 음력 9월 9일에 동제(洞祭)를 지낸다. 음력 8월 초 새 곡물이 수확될 무렵에 택일(擇日)하여 성황당에서 신곡고사(新穀告祀)를 지낸다.

2) 별신굿(豐漁祭)

10년에 한 번씩 동해안별신굿 주무를 초빙해 별신굿을 하고 있다.

5. 전설

직고개(直古介), 치(雉)고개, 직고(直古), 직현(直峴)은 모두 이 마을의 이름인데, 마을의 형

상이 꿩(雉)이 얹드려 있는 것 같다 하여 치(雉)고개라 한 것이 변음(變音)되어 직고개가 되었다고 전한다. 또 마을 뒤편에서 평해 방향으로 가는 고갯길의 경사도(傾斜度)가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다 하여 직고개(直古介)라 불렀다고도 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지씨(池氏)가 고개에 살았다 하여 지고개(池고개)라 하던 것이 변음되어 직고개라 하였다고도 전한다.

제12절 평해1리(平海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평해1리는 평해읍의 중심지로 읍사무소와 보건소, 파출소, 소방서 등 관공서가 위치하며, 마을의 중심에 전통 장사인 평해장터가 형성되어있다. 또 옛 7번국도와 연결한 마을의 입구에 버스정류장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서쪽은 금곡산(金谷山)[일명 三聖山]이고, 동서쪽 청학산(靑鶴山)과 평해(平海)의 안산(案山) 사이에 평해평야(平海平野)가 전개되며, 남대천이 동해로 흐르고 있다. 북쪽은 평해성지(平海城趾) 밑에 있는 평해2리와 읍사무소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도로가 경계를 이루고, 남쪽 도로변은 시장(市場)과 상가로 되어 있으며, 도로 안쪽은 농경지이다.



<그림 23> 남대천